

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교의 역할 -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연^{1*}, 김장현²

¹여주대학교 패션산업과, ²디자인 팩토리

A Study on the Role of the College to Foster Student Entrepreneurship Contents - Focused on the case of Y College of Dept. Fashion Industry

Ji-Yeon Lee^{1*}, Jang-Hyeon Kim²

¹Division of Fashion Industry,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²Design Factory

요약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창업 지원들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이 학생 창업의 조력자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Y전문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했던 패션산업과 학생 7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참가자들은 창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언급하였다.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수업시간부터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창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계도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함의점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맞는 멘토 구성, 테스트 마켓 확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공유오피스' 같은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지원 전반을 경험한 학생들의 창업 준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창업과 관련해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특정 학과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 그 한계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many start-up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a college can actually help students start a business, and to discuss what role colleges should have as facilitators of student entrepreneurship. To this end,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seven students who wished to start a business by utilizing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College 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first mentioned parallel and administrative inefficiency i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ship programs. Second, th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colleges in fostering start-up content are systematic planning and guidance for start-up programs operated by the college, concise administrative procedures, mentoring in various start-up items, and securing a test market.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a common office in which students can work together is necessary.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to establish a start-up support plan by suggesting what role colleges should play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but its limitation is that its scope includes only one specific major.

Keywords : Student entrepreneurs, Start-up environment, Start-up Support, College factors, Start-up activity

이 논문은 2019년도 여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Yeon Lee(Yeosu Inst.)

email: jiyeonwithu@yit.ac.kr

Received January 25, 2021

Revised March 2, 2021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여러 기업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일자리 창출이 미진한 '고용 없는 성장'이 또 다른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현재 100만 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국가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대학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들 또한 창업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 이는 과거 연구 및 교육, 인력 양성에 국한되어 있던 대학의 기능 및 역할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대학이 산학협력의 혁신 주체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생 창업 활성화의 관건이 교육과정과 지원체계 등 대학의 시스템적인 측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시, 대학의 어떤 역할이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

이에 본 연구는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교에서 대학생 창업의 가능성과 조력자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에서의 창업과 관련된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창업학의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학생 창업의 교육과 학생 창업을 위한 지원의 연구로 양분화할 수 있다.

창업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창업가 정신이나 그 외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교육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창업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Oh[2]는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분석했으며, Kwon[3]의 연구에서는 대학, 기업,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Ahn[4]은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Kim[5]은 교육시간과 기간, 교육형태, 등 창업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끼치지만 교육시간에 대한 투자가 기업가정신 발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연구는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창업 지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Son[6]은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지원 받은 창업자들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전략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ee[7]는 연구자 본인이 스타트업과 디자인 에이전시 창업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결과, 실제 지원 제도와 창업자의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ark[8]은 창업지원사업을 공간, 자금, 교육·멘토링, 홍보·마케팅으로 나누고 각 지원 방법에 따라 기업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의 교육과 지원에 편중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요소는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창업을 시도한 학생들을 통해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 창업을 위해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찰해보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2 정부 창업지원사업 동향

창업지원사업은 정부 주도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초기 단계의 창업자 혹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상황과 이슈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43.4%가 증가한 약 1조 1천억 원, 2020년은 약 1조 4천억 원이 집행되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포털인 케이 스타트업(k-startup.go.kr)을 통해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Table 1. Budget for start-up support by department
(100million won/ percent)

Spec.	2019	202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975.6 (89.2%)	12,610.8 (86.8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362.2 (3.2%)	335 (2.4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80.6 (2.5%)	315.9 (2.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52.4 (1.4%)	489.6 (3.3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16.6 (1.0%)	107.2 (0.7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tc.	293.4 (2.7%)	658.5 (4.39%)
All	11,180.8	14,517.0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합 공고[9]에 따르면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Table 1처럼 2019년과 2020년 모두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순위의 변동이 있지만 예산규모 상위 5개 부서는 두 해가 동일했다. 창업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교육 등 창업과 관련된 전반을 아우르는데 Table 2처럼 총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화 부분이 전체 예산의 45.9%와 5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연구개발 지원이 각각 33.9%와 35.3%를 차지했으며 시설·공간사업,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LINC)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대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권역별로 창업 보육모형을 대표하는 대학을 선정했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생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2019년도

기준 국토부의 공간정보창업지원, 교육부의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사업, 중소기업부의 대학기업가센터 등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교육부 소관의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과기정통부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중소기업부의 대학기업가센터 사업 등이 있다.

Table 2. Status of startup support program
(count/ 100million won/ Percent)

Spec.	2019년	2020년
Commercialization	27/ 5,130.7 (45.9%)	35/ 7,315 (50.4%)
R&D	3/ 3,797.0 (33.9%)	8/ 5,126 (35.3%)
Facility·space	22/ 1,493.8 (13.4%)	12/ 1,259 (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11/ 471.0 (4.2%)	16/ 535.4 (3.7%)
Mentoring	10/ 221.8 (2.0%)	13/ 217 (1.5%)
Network	6/ 66.5 (0.6%)	6/ 64.4 (0.4%)
All	11,180.8	90/ 14,517

2.3 전문대학의 창업지원 동향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도전정신이나 혁신성을 성장시키고, 업무 추진력을 향상시켜 창업 뿐 아니라 학업 및 취업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창업 그 자체를 위한 교육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창업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창업통계조사 결과 보고서[10]에 따르면 대학 내 창업 강좌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와 학점과 관련이 없는 비정규 교과로 나뉘며 정규교과의 경우 교양과 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정규교과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경진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11]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36개 전문대학에 개설된 창업 강좌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양은 2,614개, 전공은 3,343개로 총 5,957개가 운영되었다. 전체 창업 강좌 중 이론형 과목은 4,367개, 실습형 과목은 1,590로 나타났다. 2019년 전문대학의 비정규교과인 창업활동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창업동아리는 1,221개가 운영되었으며 창업경진대회는 164회, 창업캠프는 139회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를 시행하거나 창업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 나타났는데 이는 Table 5와 같다.

Table 3. 2019 Status of startup class in college

Spec.	Liberal arts class		Major class	
	Number of courses	Number of completed	Number of courses	Number of completed
Theoretical class	2,228	67,524	2,139	59,451
Practical class	386	8,098	1,204	31,229
All	2,614	75,622	3,343	90,680

Table 4. 2019 Status of startup activities in college

Spec.	Startup Club	Startup competition	Startup camp
Count	1,221	164	139

Table 5. 2019 Status of establishment of a startup-friendly academic system

Spec.	Implementation of Leave of absence for startup	Implementation of recognition of startup replacement credit
Yes	100	46
No	36	90
All	136	136

2.4 Y전문대학교 창업지원 운영

Y전문대학교의 창업지원 운영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장소와 장비 제공, 창업가 발굴 및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는 창업지원단을 가장 상위 부서로 두고 학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창업 지원 활동은 창업교육센터가 담당하고 있다(Fig. 1). 2019년 기준 Y전문대학교는 학과마다 한 개 이상의 창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학생들은 따로 교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창업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또한, 창업동아리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창업 캠프와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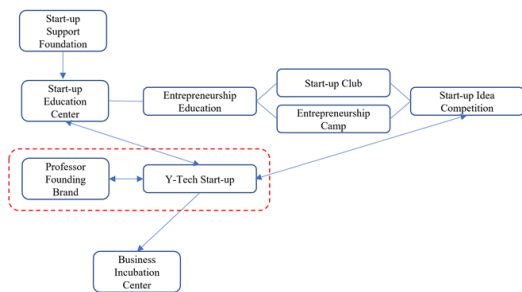


Fig. 1. Flow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

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여기서 완성된 창업 아이디어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Y전문대학교의 창업 지원 운영은 대부분 대학들과 비슷하지만 Fig. 1.의 점선 부분인 교수창업 브랜드와 학생 자체 창업 운영기구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두 기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실제 창업에 앞서 테스터 마켓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조직 구성과 그 유통망을 제공을 꼽을 수 있다.

2.4.1 학생 자체 창업 기구

학생 자체 창업 기구(이하 Y-Tech)는 학교의 창업수업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직으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국가지원사업이나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나 이력을 중요시 보는 점과 초기 사업 구성에 어려운 부분이 비슷하다고 인정한 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Y-Tech를 구성해 교수 등 대학 내 전문가 집단의 멘토링을 요청하거나 함께 국가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창업동아리처럼 학교의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가지원 사업이나 특정 사업의 이행, 초기 사업 구성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2.4.2 교수창업 브랜드

교수창업 브랜드는 2015년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 교수 4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패션디자인 유통업체이다. 전문대학교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수인 실습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졸업생들의 작품을 판매를 대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시험해보는 테스트 마켓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학 내 매장을 시작으로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사이먼과의 MOU를 통해 2016년에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매장을 입점하였으며 같은 해부터는 1년에 2회 아울렛 내에서 학과 내 창업동아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스토어 팜과 네이버 아울렛 윈도우를 통해서도 온라인 몰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거나 스타일링을 해보는 활동을 연계해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창업 브랜드는 학생 자체 창업 기구가 생겨나면서

이들의 테스트 마켓을 위해 기존의 아울렛 매장을 제공하고 창업 후 초기 창업을 지원하며 기존의 유통망을 제공, 온라인몰 운영이나 패션 전문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Y전문대학교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했던 패션산업과 학생들이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심층면접법은 동일한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에도 학생의 특성, 창업 아이템의 종류, 활동 참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결과 및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소들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활동 및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학생 창업콘텐츠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Y전문대학교에서 제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션산업과 학생 28명 중,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재학생 7명, 총 6개 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면접대상자 및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

Name	Gender	Age	Start-up Ideas
1	M	24	DTP Custome
2	F	22	DTP Custome
3	F	24	Upcycling fashion
4	F	24	Hand-made Acc
5	F	22	
6	F	26	Pet fashion
7	F	24	Emoticon design

본 연구는 사회현상의 단일성이나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개별 사례(연구대상)의 독특성을 이해하는데 중

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의 측정보다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12].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본 대학 창업교육센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제출된 설문평가지, 학생활동회의록, 멘토들의 멘토링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Y전문대학의 창업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다루는 Y전문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은 2019년 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타 학과의 학생들도 참여하였으나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위해 패션산업과 학생들 중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 프로그램 전체를 이용한 학생으로 한정 하였다.

본 대학의 창업 수업은 학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패션산업과의 경우는 2019학년도 1학기에 ‘패션창업’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되었다. 연구 참가자 중 사례1 학생을 제외하고는 2019년 1학기 창업 수업을 이수했다. 창업동아리는 이 해에만 두 번 모집이 되었는데 이는 본 대학이 혁신지원사업(1유형)에 선정되면서 동아리가 두 트랙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아이디어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희망 학생들의 시제품제작 및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해 11월에 융합형 창업캠프를 진행하였다. 12월에는 제작된 시제품 또는 창업아이템으로 참가하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학생 자체 창업 기구 구성은 3월 22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활동하였다. 학생 자체 창업 기구를 제외하고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은 각각의 과정에서 관찰일지 작성 및 소감문 작성, 설문평가가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4.2 사례에 대한 기술

연구참여자 1은 군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해 3년 과정 중 한 학기만 남은 상태에서 지도교수와 진로에 대해 상담 중에 창업을 목표로 삼고 창업동아리를 들게 되었다. 동아리 가입 후 창업 아이템을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

이디어가 없어 매우 힘들어했고 이 과정에서 교수창업 브랜드에서 기획하고 있던 DTP 기술을 교육하여 이를 기본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학교 창업 행사에 참여도가 높았으나 실제 창업은 하지 못하고 업체에 취업하였다. 가을 졸업이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행사가 9~12월 사이 실행되어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을 세팅하기가 힘들어 시제품 개발까지 마친 상태에서 창업을 포기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입학 때부터 창업을 희망하던 학생으로 해당 교수창업 브랜드에서 일하는 등 경험을 많이 쌓았던 사례자이다. 학교 창업 행사 참여도가 높았으나 단 기간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라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교수 창업 브랜드를 통해 DTP 기술을 심도 있게 배우고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 기계 이용 등을 할 수 있어서 창업 준비가 수월했으나 졸업작품전까지 준비하면서 졸업 전에 사업을 세팅하지 못했고 학교에 남길 원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졸업 후 타 지역에 있는 본가로 가면서 실제 창업을 하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 3은 원하는 진로는 취업이지만 그 전에 창업하여 직접 브랜드를 운영해 보기를 희망해 학교의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는 창업동아리가, 서류를 작성 같은 업무를 배우고 제도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은 창업캠프가 도움이 되었으나 전문성보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가장 빨리 제품을 생산해서 교수 창업 브랜드를 통해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고 Y-Tech를 통해 각종 사업에 지원하였다.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실제 창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품의 대량생산 문제, 초기 자본금 문제로 위탁 판매만 시행하다가 실제 창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4, 5는 한 팀으로 창업동아리에 지원해 이를 시작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창업을 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배웠던 아이템 제작과 교수창업 브랜드를 통해 연결된 사입 경로, 새로운 유통 경로 등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Y-Tech를 활용해 외부에서 진행하는 바자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테스트 마켓을 통해서 샘플의 반응을 살피고 생산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데 좋았고 시장이나 생산업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원했으나 지역적인 문제로 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6은 늦게 학교에 입학해 입학 초부터 창업을

결심했던 학생이다. 저학년 때부터 창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았으며 개인적으로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에 지원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다. 학교 지원금과 학교 지원금 그리고 교수창업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를 통해 초기 자금을 모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세금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학기 중에 이뤄졌는데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마다 법이 달라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창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학교 행사가 힘들지만 재미있었다. 창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는데 전체 내용이 미리 공지되어 있어서 계획을 짜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편입과 대학원 진학을 원하면서 학업과 창업을 함께 하고자 했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모티콘 디자인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자 없이 활동하였다. 이모티콘을 등록하는 방법이나 기타 디자인 판매에 대해 멘토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자신과 같은 케이스를 교내 프로그램의 멘티들이 모르는 것 같다고 하였다. Y-Tech 활동을 하며 본인이 디자인한 이모티콘을 타 친구에게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협업 형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학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학기 말에 연달아 몰려있고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것, 지원을 받을 때마다 내야하는 양식이 겹쳐서 학교를 다니며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것들까지 소화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은 받지 못했고 졸업 후 혼자서 처리할 자신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고 디자인만 제공하는 콜라보레이션만 진행한다.

4.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경험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 범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3개의 주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학업과 창업 병행’ ‘창업여부’ 였다.

Table 7. Category and contents

Category	Subcategory
Start-up supporting program	Official program
	Additional program
Parallel with study and the program	Difficulty
	Inefficiency
Success or failure	Success
	Failure

4.3.1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수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대부분 동아리 활동부터 언급을 시작하였다.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과에 개설된 '패션창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캠프에서 연수 받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었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 캠프가 그 뒤를 이었다.

창업을 목표로 하니까 바로 창업동아리를 들게 되었죠. (연구참여자1)

창업 행사가 너무 몰려있어서 힘들었어요. 시험도 있는데... (연구참여자2)

아이디어를 글로 쓰는 게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멘토분들이 패션산업을 너무 모르셔서 좀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연구참여자3)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창업동아리 지원금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참여자6)

(2) Y-Tech와 교수창업브랜드

Y전문대에서 운영된 학생 자체 창업 기구인 Y-Tech와 교수 창업 브랜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보였다.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DTP 기술을 알려주셔서 디자인을 강점으로 해볼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1)

혼자라면 지원할 엄두도 못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같이 해주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연구참여자2)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Y-Tech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3)

제품 만들 때 잘 팔릴까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부담 없이 테스트 마켓을 할 수 있는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연구참여자4)

판매 방법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다른 걸 더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6)

저는 디자인만 하니까 실제 제품이 없는데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연구참여자7)

4.3.2 학업과의 병행

(1) 병행의 어려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학업과 창업 프로

그램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더욱 문제가 되었으며 보고서 작성을 힘들어하거나 졸업작품전과 겹치자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졸업작품전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학교 스케줄과 학과 스케줄이 엉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연구참여자2)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연구참여자3)

저희는 팀이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는데도 일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3학년이 너무 바쁜 때잖아요. (연구참여자5)

저는 편입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성적이 너무 신경 쓰여서. (연구참여자7)

(2) 행정적 비효율성

행정적인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결과보고서나 소감 문 같은 작성이 필요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른 이유로 제출해야 하는 점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내용 공지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학교 행사 참여하고 지원 받는 건 좋은데 서류가 너무 많아요. (연구참여자1)

외부 사업에 지원할 때는 온라인으로 제출했거든요.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좀 편하고 쉬울 텐데 절차 처리가 아쉬워요. (연구참여자2)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기 보다 준비를 시기적절하게 못하니까. (연구참여자6)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면서도 비슷하고행사 때마다 내야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요. (연구참여자7)

4.3.3 창업의 실현

(1) 창업 성공

사례연구자 7인 중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한 학생은 2인, 사업자등록 없이 디자인만 콜라보레이션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생 1인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까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혼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학교를 같이 다녀서 매일보니까 가능했던 것도 같고...(연구참여자4)

수업시간에 배웠던 걸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이걸 테스트 마켓을 통해서 시험해 보
고... 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런 활동이 불가능 했을 것 같
아요. (연구참여자5)

클라보레이션이라는 형태는 혼자서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창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
니까 아이디어도 공유가 되고... (연구참여자7)

(2) 창업 실패

창업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창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
계도 드러났다.

처음 동아리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아이디어도 없었고요. (연구참여자1)

재학 중에 다 준비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더라고
요. 학업도 있으니까 졸업하고는 집으로 내려가야 하니
까 도움 받을 데가 전혀 없고... (연구참여자2)

창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 Y-Tech라도 운영됐으면
상황이 좀 달랐을 거 같아요. 학업이랑 창업을 병행한다
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졸업 후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잡자
기 혼자 하려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연구참여자7)

5.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교의 역할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학생 창업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
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스케줄과 학과 스케줄이 엉키니까 정
신이 없다”, “서류가 너무 많다”, “절차 처리가 아쉽다”,
“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학생들이 활용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학기 말에 학과 자체
행사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몰려있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분산시켜
학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낯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시켜 본인의 창
업이나 외부활동 경험의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창업 관련 수업을
이미 수강하였음에도 창업 활동의 시작을 비교과 활동인

캠프나 동아리로 인지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체계적 안내가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창업 아이টে에 적합한 멘토 구성이 필요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들이 패션산업을 모른다”,
“너무 일반적인 멘토링이다”라고 멘토의 전문성에 대
해 언급하고 있었다. 창업 아이টে마다 특징이 있고 학생
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해당 아이টে
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이 필요하기 때
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처럼 교수 인력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창업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테스트 마켓 확보 혹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참
여자들은 교수창업 브랜드 매장을 통해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패율을 낮추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MOU를 통한 지
자체 상권에 오프라인 마켓 등을 활용해 이러한 기능을
해준다면 학생 창업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
로 생각된다.

넷째,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
동의 공유오피스’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 창업 자치 기구를 이야기 하며 “혼자서는 할 수 없
다”, “같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 아이디어
공유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는 각 동아리
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창업
캠프에서도 타과 학생이나 팀과의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창업을 계획할 때도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때뿐 아니라 외부 활
동을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창업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있
는 창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
문대학교에서 대학생 창업의 가능성과 조력자로서의 전
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Y전문대학교에서 제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
램에 참여한 패션산업과 학생들의 질적 연구를 통한 문
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창업동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 캠프가 그 뒤를 이었다. Y-Tech와 교수

창업브랜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수자들의 역할과 공동 참여 및 실제적인 테스트 마켓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하였다. 창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학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언급하였다.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수업시간부터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창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계도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함의점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맞는 멘토 구성, 테스트 마켓 확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공유오피스' 같은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과 재학생들 중 창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타전공 및 대학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대학이 학생창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Heo, H. Jang, J. Lee, "Explo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1 pp.76, Jan.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75>
- [2] O. Ju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satisfaction to start-u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start-up information*, Ph.D dissertation, Mokpo University, Mokpo, Korea, 2015.
- [3] A. Kwon,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Ph.D dissertation, Chun-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4] T. Ah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pp.3-4, 2017.
- [5]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al Standard on Corporate Performance*,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2019.
- [6] J. Son,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youth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strategies*, Ph.D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2016.
- [7] J. Lee, *Preference research of government support for start-up compan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Kyungkido, Korea, 2018.
- [8] S.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tart-up by the start-up support of each support projects*,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nju, Korea, 2021.
- [9] 2020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integrated announcement [Interne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ited 2019 Jan. 2]. Available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6185&parentSeq=1016185&searchRtnYn=A> (Accessed Oct. 10, 2020)
- [10] Consulting&consult, 2018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sult Report, Korea Institute of Startup&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orea, pp.1-76.
- [11] Academyinfo, Public Announcement of University Information, Status of vocational college start-up support [cited n.d.], Available From: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accessed Jan. 5, 2021)
- [12] D. Im,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ach and applica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Vol. 15, No.1 pp.166, 2009.

이 지 연(Ji-Yeon Lee)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학박사 수료)
- 2015년 1월 ~ 현재 : 프로젝트 에프 이사
- 2013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패션산업과 조교수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전통의상디자인, 패션문화콘텐츠

김 장 현(Jang-Hy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예술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디자인 팩토리 대표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스포츠패션디자인, 디지털패션디자인